



여수박람회 D-100

구례·담양·곡성 선거구 유지될 듯

민주통합당 “농촌 지역구 폐지 없을 것”

교통·숙박·관광대책 아직도 멀었다

하루 최대 32만명 몰릴듯
주차장·객실 턱없이 부족
범정부 차원 홍보도 절실

5월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100일(2월 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박람회장을 찾을 1000만 이상의 관람객을 위한 교통·숙박·관광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해 범정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박람회 대한 관심도 낮아 국가적 홍보·마케팅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관련기사 3면>

◇93일간 1082만명 관람, 5월 주말엔 32만명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3차 관람객 수요예측 조사'결과, 박람회 기간 예상 관람객은 1082만1000명. 특히 개막식이 열리는 5월 첫째 주와 석가탄신일, 여름 휴가철(7월28일~8월5일), 현충일에 관람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월 주말에는 하루 최대 32만명이 몰리고 개막식 때는 행사장 수용 능력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가 하면, 8월 주말에도 하루 27만명이 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하루 관람객이 20만명을 넘어서 박람회장이 혼잡할 경우 단순 관람 의사를 가진 응답자의 28.5%는 '관람하지 않거나 유보하겠다'고 응답한 데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껏 박람회장을 찾았다가 불거리듯 제대로 못보고 돌아가는 등 막대한 관람객을 인파에 떠밀려 다니다가 돌아가는 관람객이 생기기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교통 대란' 최소화 대책 없나 = 박람회 기간 여수로 유입되는 차량은 승용차 179만1000대, 버스 8만9000



여수세계박람회 100여일 앞 둔 31일, 박람회장과 여수역을 연결하는 아케이드형 '엑스포 디지털갤러리'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박람회 핵심 전시시설 중 하나인 디지털갤러리는 길이 415m, 폭 21m의 구간 중 218m 천정에 LED전광판을 설치, 불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최한태기자 choi@kwangju.co.kr

대 등 188만대에 달한다. 관람객이 몰리는 5월 주말의 경우 하루 최대 5만9000대의 승용차, 버스 2300대가 한꺼번에 도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조직위원회의 수요예측 조사결과 승용차를 이용해 박람회장을 찾겠다는 관람객이 60.9%에 이르고, 교통

대책이 여수로 진입하는 차량을 여수시 외곽 6곳(179만 5000m)의 환승주차장(승용차 3만9087대·버스 936대)으로 유도해 관람객들을 환승주차장~박람회장간 셔틀버스로 실어나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주말에는 도로가 주차장이 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열차 수용 대책도 미흡하다. 정부는 박람회 기간 중 하루 평균 1만8000명, 주말 최대 4만8000명이 KTX 등 철도를 이용해 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현재 KTX 수용 능력은 하루 평균(5회) 1800명에 그쳐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부족한 숙박시설 = 전남도와 박

람회조직위, 여수시는 박람회 기간 호텔(3346실)·콘도(7300실) 등 총 3만5738실의 숙박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시간 거리 이내의 숙박시설조차도 호텔은 677실, 콘도 5672실, 펜션·휴양림 7537실이 부족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정개특위 합의는 실패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 31일 4·11 총선 선거구 확정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 협상안에 포함된 구례·담양·곡성 선거구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안을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선거구 유지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구례·담양·곡성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 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정개특위 공식선거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같은 선거구 확정 난항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구례·담양·곡성 선거구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선거구 유지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지역 이계호 예비후보 지지자로

구성된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50여명이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 "도시 선거구를 살리기 위해 농촌 선거구를 빼앗는 지역구 강탈 당론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와 공개질의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에 임종석 사무총장은 "농촌지역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폐지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구 현역인 김효석 의원이 이날 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에게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건의를 묵살하고 농촌지역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선거구 획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처럼 구례·담양·곡성 선거구가 유지될 것인 전망이 일자 이 지역구 김재두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지역 선거구 유지가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함을 국민과 정치권에 각인시켰다고 자부한다"며 보통국민이 이어오던 단식투쟁 중단을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본사 대표이사 김여송씨

광주일보사는 1일 대표이사 사장에 김여송(金汝松·61) (주)광림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광주일보 제9대 사장에 취임하는 김사장은 광주일보 발행인·편집인·인쇄인을 겸한다.

신인 김사장은 함평태생으로 1975년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77년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매일 수습기자공채로 입사, 광주일보에서 정치부장·편집부국장·서울취재본부장·서울지사장 등을 지냈다.

김사장은 지난 1988년부터 2002년까지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에 걸쳐 14년 동안 전국 일간지 가운데 최장기 청와대 출입기자로 일했으며



김여송 사장

지난 2000년 6월 20일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호남지역 언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현장 취재했다.

김사장은 2003년부터 상장회사인 특장차 제조사 (주)광림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 사장 이취임식은 1일 오전 11시 본사 16층에서 사내행사로 열리며 축하 화환 등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광주댐 독높이기 '괜한 공사'

감사원, 장성댐·나주댐 등 농어촌공사 마구잡이 선정 지적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영산강 장성댐·광주댐·왕동·나주댐 등 전남 4곳을 비롯 사업 효과가 낮은 저수를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과 함께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광주일보 2011년 5월27일·31일자 1면)을 불러온 광주댐과 장성댐 독 높이기 사업시행 이후 댐의 '환경용수 공급가능량'(추가 저수된 물로 하천에 흘러보낼 수 있는 연평균 공급 가능량)이 추가 저수용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4대강 유역 94개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저수지 독 높임으로 추가되는 환경용수 공급 가능량(추가 저수된 물로 하천에 흘러보낼 수 있는 연평균 공급 가능량)을

산정하면서 임의로 담수 수위를 지구별로 다르게 적용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사업 우선순위를 재산정한 결과 영산강 장성댐·광주댐·왕동·나주댐, 섬진강 노촌 등 8곳이 실제로는 96위 밖인데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3594억원에 더 투자하고도 환경용수 공급가능량은 연간 448만22천m³가 더 적어지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주민반대와 사업비 과다 등으로 당초 선정된 96곳 중 21곳을 제외하고 다른 21곳을 추가 선정하면서도 우선순위 비교·검토 없이 임의로 선정했다. 또한 광주댐과 장성댐의 저수지 독 높임으로 추가되는 '환경용수 공급가능량'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광주댐과 장성댐, 나주댐 등은 홍수조절 기능을 함께 하는 저수지로서 홍수기에 제한수위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독높임으로 인해 저수용량이 늘어나더라도 그만큼 환

경용수 공급 가능량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추가 저수용량을 추가 환경용수 공급가능량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연간 593만7000~1089만3000m³만큼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담양댐은 추가저수량(840만6000m³)과 환경용수량(223만9000m³)을 서로 바꿔 입력해 과다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단기'(설계·시공 일괄) 입찰과 낙찰자 결정 방식도 지적을 받았다. 담양댐 독 높이기 사업은 제당 및 여수로 공사비 비율이 전체 공사비의 37%에 불과하므로 '입찰 가격점수'의 비중을 세부기준에 따라 45~55%로 해야 하나 40%를 적용해 추정금액의 99.93%의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광주댐과 장성댐은 독높이기 사업 이전인 지난 2008년 고시된 '영산강 유역 취수계획'에 따라 홍수조절량 확보를 우선시한 사업지구"라고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전남 내일 오전까지 최고 15cm 폭설

지난 31일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 광주·전남지역에는 2일까지 곳에 따라 최고 15cm의 적설량이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광주·전남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북서쪽에서 확

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새벽 한때 눈이 오다가 개겼으며, 늦은 오후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다시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2일 오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특히 2일 광주와 여수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최저기온 영하 9~0도, 최고기온 4~8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은 3일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4일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행복을 낳는 복지!

복지행정전문가

- 전남 보성출생(1956년생)
- 대성초/전남여중·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정외과 학사, 석사
- 미국 오리건대학교 행정학 석사
- 서울 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 전라남도 복지(여성)국장(전)
- 김대중대통령 직속 지방자치추진위원회 실무위원(전)
- 노무현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전)
- 광주cbs매거진 진행자(전)
- 미국 웨슬러 대학과 명문고수(전)
- 한국거버넌스학회(전)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전)
- 여성과 참여 대표(현)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현)
-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박혜자 후원회

2 민주통합당 서구(갑) 국회의원에비후보

후원회장: 김성기 / 김봉찬

후원 안내

- 개인은 연간 총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입을 하지 않으셔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후원 금액은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

- 홈페이지(http://blog.naver.com/hj_p)에서 후원방법확인 (주소창에 박혜자만 치세요)

※ 양동, 양3동, 농성1, 2동, 화정1, 2동, 상무1동, 치평동, 광전동, 유덕동

후원계좌: 광주은행 138-121-957404
[예금주: 이대로(박혜자 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 삼촌동 966-5 낙헌빌딩 2층
T. 062-385-2288 F. 062-385-8037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초과부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